

[대표원장 칼럼] 00동에서 '교정 난민'이 생기는 이유

제가 000에 터를 잡은 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지나는 익숙한 풍경과는 달리,

이따금 마주치는 거리의 간판이나 온라인 광고들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그중에서도 교정치료 분야의 광고를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정치료처럼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있는 비급여 진료는 누구나

'가격'을 먼저 비교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정 전문의로서, 이 지점에서 항상 깊은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교정치료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규모'라는 두 가지 환상

그렇다면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여러 명의 의사가 상주하는 '대형 병원'의
규모를 보고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한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의사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 교정 진료를 전담하는 의사는
단 한 명의 '봉직의(페이닥터)'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진료를 보거나
보조 인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대형 병원'이라기보다는, 그저 여러 진료 과목이 한곳에 모여있는
'공장식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파격적인 가격'의 정체는 때로 '의사의 낮은 숙련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를 저렴하게 유치하여 이제 막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의사의 '경험치'로 삼는 '박리다매식 진료'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교정 난민'은 시스템이 만든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봉직의'의 '고용 불안정성'입니다.
환자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본 병원의 규모나 인테리어를 믿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정작 1년 뒤 그 의사는 계약이 만료되어 병원을 떠나고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료 연속성의 붕괴이며, 환자가 치료 도중 갈 곳을 잃고 병원을 떠돌게 되는 교정 난민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주치의의 교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정치료는 한 명의 의사가 세운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의 미세한 치아 이동과 골격의 변화를 예측하며
2~3년간 함께 호흡하는 긴밀한 여정입니다.

만약 의사가 중간에 바뀐다면, 이 모든 진료 철학은 단절됩니다.

새로운 의사는 자신이 세우지 않은 계획을 이어받게 되며,
이는 곧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치료 계획이 산으로 가거나 불필요한 기간 연장,
심지어는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싼 가격'과 '큰 규모'를 보고 시작한 치료가, 환자에게는 가장 비싸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아닌, '책임'을 보아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환자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교정 병원 선택의 기준은 '가격'이나 '규모'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원장 책임 진료'란, 단순히 명패만 걸어둔 것이 아닙니다.
상담부터 정밀 진단, 치료, 그리고 모든 장치가 제거된 후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표원장 1인이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의사가 바뀔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환자의 작은 습관과 변화까지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진료의 일관성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정 치료의 가치는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한 의사가 한자리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책임지며 쌓아온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타협하지 않는 실력을 기반으로 한 진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에게 돌아가는 진정한 '프리미엄(Premium)'입니다.
가격 경쟁과 공장식 시스템 속에서, 환자의 미소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교정과 의사들의 진정한 헌신이 묻히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